

-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들의 본래의 종교에 너희 자신을 안정시키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옴 산티”라고 해라. 이것은 또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
- 질문: 왜 신봉의 길에서도 여기서처럼 신에게 보그를 드리는 제도가 있느냐?
- 대답: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쉬브 바바가 무체이며 어떠한 것의 경험에 대한 효과도 초월해 있고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향기는 그에게 도달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아버지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공여자이며, 정화자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에게 보그를 바쳐야 한다.
- 노래: 우리들의 순례는 독특하네!

옴 산티. “옴 산티”라는 단어가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솟아났다.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나마스테”라 하면 그 사람도 역시 “나마스테”라 하듯이, 여기서도 아버지가 “옴 산티”라 말했고, 이 사람의 영혼을 포함한 모든 자녀들의 가슴에도 “옴 산티”가 우러날 것이다. “옴 산티”는 영혼인 나는 평화의 화신이라는 뜻이다. 너희들은 응답해야 한다. 이것은 응답이다. 다른 누구도 이것을 의미 있게 말할 수 없다. 지식의 태양, 아버지는 “옴 산티”라고 한다. 지식의 달도 역시 “옴 산티”라고 한다. 지식의 별들도 역시 “옴 산티”라고 말한다. 모든 이들이 다 별들에 포함된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너희의 본래의 종교, 즉 너희들이 평화의 화신이며 평화의 나라의 주민이라는 것을 안다. 너희에게는 영혼을 아주 잘 안다는 믿음이 있다. “위대한 영혼, 죄 많은 영혼”은 올바른 표현이다. 영혼은 몸을 벗고 다른 몸을 취한다. 그러나 아무도 영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영혼인 나는 참으로 작다. 영혼은 84생의 배역을 연기한다. 너희들도 이것을 몰랐고, 다른 누구도 이것을 몰랐다. 너희 자녀들은 지금 직접 아버지 앞에 앉아 있다. 너희들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속하도록 만든다. 자녀들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그들에게 속하게 만든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영혼들의 무한한 아버지가 이 브라마의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안다. 그는 브라마의 몸에 들어와서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를 세우고 있다.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 즉 태양 왕조의 왕국은 지난 사이클에도 세워졌었다. 신이라고 불리는 아버지는 사이클마다 이 수립의 과업을 수행한다. 모든 이들이 신, 아버지에게 슬픔을 없애고 행복을 달라고 청한다. 너희들이 행복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달라고 청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너희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한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것도 달라고 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황금시대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가 너희 자녀들을 행복의 나라의 주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아버지가 설명한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다시 한 번 이 바바에게서 행복의 나라를 유산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무한한 아버지에게서 무한한 유산을 차지한다. 신봉의 길이 어떻게 계속되고, 인간 세계 나무의 창조, 부양,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드라마의 처음, 중간, 마지막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설명되었다. 이것은 물질 세계, 그것은 비물질 세계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 사이클 동안 내내 신봉을 행해왔다는 것을 안다. 지금은 철시대의 끝이다. 너희들은 오직 합류시대에만 유산을 받는다. 너희 자녀들은 이것을 아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오직 너희 자녀들만이 너희가 지금 합류시대에 있다는 것을 안다. 다른 누구도 소개를 받기 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낡은 세계가 변해서 새것이 되면 그때 틀림없이 합류시대가 온다. 이 세계는 전체가 낡았고, 철시대라고 불린다. 너희들은 또한 처음에는 온 세계 전체에 종교가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도 안다. 새로운 세계에는 바라트의 땅뿐이고, 아주 적은 인간들이 있다. 오직 새로운 세계만 천국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바라트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금은 낡은 세계에 낡은 바라트가 있다. 간디지도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바라트, 새로운 델리(뉴 델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었다. 지금은 새로운 바라트도 뉴 델리도 없다. 새로운 바라트에는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이 있었다. 지금은 동일한 그 바라트에 라반의 왕국이 있다. 너희들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델리”라는 것도 역시 써야 한다.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 사람의 왕국이다. 오직 세계를 새것으로 만드는 분만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는 브라마를 통해서 천국의 새로운 세계를 세우고, 너희들은 그 천국의 유산을 차지하려고 여기로 온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현명한 방법들을 알려준다, 즉 너희들이 노력하도록 고취한다. 너희들은 그를 직접 만나려고 여기로 오고, 또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역시 공부한다. 너희들은 가서 그를 직접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다. 거기서는 다른 인간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인간이다. 너희들은 쉬브 바바를 만나려고 여기에 온다고 말한다. 너희들은 “그는 무체입니다”라고 한다. 우리 영혼들도 역시 무체다. 우리는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려고 여기에 온다.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든 틀림없이 배우다. 신에게도 역시 이름이 있다. 오직 무체인 쉬바만이 신이라고 불린다; 다른 누구도 신이라고 불릴 수 없다. 오직 무체인 분만 신으로 기억된다. 그는 숭배받고 영혼들도 역시 숭배받는다. 사람들은 루드라의 희생의 불을 피우고 진흙으로 살리그람들을 빚는다. 돌이나 진흙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진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것들을 부셔서 다시 만들기가 쉽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모른다. 루드라의 희생의 불에서는 아주 많은 영혼들이 숭배받을 수 있다. 아주 많은 자녀들이 있다. 모든 신봉자들이 신의 자녀이고, 그들은 아버지를 기억한다. 쉬브 바바가 오직 바라트에만 온다는 것을 바바가 이미 너희에게 설명했다. 신봉자들은 살리그람들을 만들고, 그의 조력자, 즉 신에게 협력하는 너희 자녀들 중 몇몇을 숭배한다. 크고 작은 희생의 불들이 있다. 매우 부유한 사람들은 큰 희생의 불을 피운다. 그들은 살리그람도 수십 만 개 만든다. 작은 희생의 불이면 5천에서 1만 개의 살리그람만 만들 것이다. 상인에 따라서 희생의 불도 달라지는데, 그는 그 수만큼의 살리그람을 만들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쉬바를 만들고, 나머지는 모두 살리그람들이며, 그러면 그 수만큼의 브라민들도 역시 필요하다. 너희들 중 많은 수가 희생의 불을 보았을 것이다. 너희들은 바바가 자녀들에게 봉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숭배받는다라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지금 숭배받을 가치 있게 되고 있다. 영혼은 말한다: 바바, 당신은 영원히 숭배받을 가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들도 역시 숭배받을 가치 있게 만들고 계십니다.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인 너희들이 몸을 취하면 숭배받을 가치 있는 신인이라고 불릴 것이다. 숭배받을 가치 있게 되고 숭배자가 되는 것은 영혼이다. 아버지는 단 한 번만 온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다시 가르치지 않는다. 듣는 것은 영혼이다. 영혼이 그의 몸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도 이 몸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람을 통해 듣는다. 그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친다. 그는 몸을 갖지 않는다. 브라마, 비슈누, 샹카르조차 각자 미묘한 몸을 가진다. 여기서 모든 영혼은 각자의 몸을 가진다. 이것은 물질 세계다. 쉬브 바바는 무체다. 그는 지식의 대양, 행복의 대양, 사랑의 대양이다. 그가 와서 불순한 모든 이들을 순수하게 만든다. 이것에는 영감이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영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서 수레를 취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들은 쉬바 사원 앞에 황소의 상을 세워놓는다. 인간들의 지각이 완전한 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왜 황소가 쉬바 앞에 놓여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외양간”이라는 이름을 들었고, 그러므로 황소를 거기에 놓아둔 것이다. 누가 황소를 탔느냐? 슈리 크리슈나 영혼은 황금시대에 존재한다. 그가 동물의 몸 속에 앉을 필요가 왜 있겠느냐?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드로파디가 단 한 명뿐이었던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소리쳐 부른다. 그들은 슈리 크리슈나가 사리를 계속 늘려주는 데 대한 연극을 만들었지만, 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21생 동안 너희가 옷이 벗겨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들이 지금 이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어떤 시기에 묘사해왔는지 보아라. 신봉의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그들은 이야기들 등은 모두 영원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환생하는 동안 그것들을 들어왔다. 그들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왔다고 말하지만, 언제 그것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들은 라반의 왕국이 언제 시작되는지조차 모른다.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 너희들은 아주 많은 봉사를 한다. 태양, 달, 별들은 어쨌든 존재한다. 그것들은 황금시대에 존재하고 지금 이때에도 존재하며, 변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제 바라트를 어둠으로부터 다시 한 번 빛 속으로 데려가는 도구들이 되었다. 신봉의 길은 암흑이라고 불린다. 너희들은 지구의 별들로 찬양된다. 별들이 있으면 해와 달도 역시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들의 영적 순례다. 너희들은 지금 다시는 이 죽음의 나라로 돌아오지 않을, 그런 순례지로 갈 것이다. 이것은 지금 죽음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불멸의 나라도 역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죽음의 나라는 동시대에 시작된다. 너희들은 지금 불멸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참된 불멸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너희들은 너희 영혼들의 순례가 독특하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순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직 기억을 통해서만 너희들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저 사람들이 순례를 가도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습관이 깊이 들어서 다른 이들 몰래 술을 가져가기까지 한다. 오늘날에는 순례 중에도 더러운 사람들이 많다. 그들 모두 불순하다. 브라민 사제들이 불순하듯이 순례자들도 역시 불순하다. 안내자가 너희들을 순례로 데려가지만, 그들은 순수하지 않다. 너희들은 순수하게 지낸다. 너희들은 참된 브라민들이다. 너희 영혼들은 순수하게 지낸다. 오직 기억의 순례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순수해진다. 너희들은 사토프라단해져야 한다. 바바는 거듭 되풀이해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아!”라고 쓴다. 이것은 쉬브 바바가 영혼들에게 쓰는 것이다. 그가 말한다: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타모프라단한 데서

사토프라단하게 될 것이고, 사토프라단한 세계의 주인들이 될 것이다. 이 하나의 지시가 주된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쉽다. 오직 기억을 통해서만 너희들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기억하며 머물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죄는 없어질 수 없고, 그러면 너희들은 벌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바바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 소득을 벌 수 있다. 어디를 가든, 먹고 걷고 움직여 다니면서, 그저 아버지만 기억해라. 이것이 너희들의 소득이다. 너희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더 쉽다. 주의 등의 문제는 없다. 슈리나트 사원에서 그들은 슈리나트를 기억하며 앉아서 그에게 보그를 공양한다. 그것은 돌로 된 상일 뿐이다. 너희들은 누구에게 보그를 공양해야 하느냐? 한 분 뿐인 쉬브 바바만이 이 권리를 가진다. 오직 그만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분이며 정화자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에게 물을 섞은 우유를 바친다. 나에게 왜 이 보그를 주느냐? 나는 무체이며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숭배하느냐? 너희들은 보그를 내 앞에 두지만, 신봉자들은 나에게 보그를 공양한 다음 그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 너희들이 바바에게 반드시 보그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것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그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보그를 쉬브 바바에게 드리고, 이것은 쉬브 바바의 반다라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 반다라의 주인인 분에게 보그를 드려야 한다. 비록 너희들이 보그를 드리더라도 그것을 먹는 이는 너희 자녀들이다. 이 브라마도 그것을 먹지만, 나는 먹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틀림없이 향기를 취한다: “너희들이 아주 좋은 보그를 준비했구나.”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신체기관을 가진다. 이 몸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이 브라마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나는 그저 와서 그에게 들어간다. 나는 너희 자녀들을 불순한 데서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그의 입을 사용할 뿐이다. 사람들은 가우무크(암소의 입)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말로 암소가 있다. 너희들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입양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이다. 그러나 누가 어머니들을 돌보겠느냐? 그러므로 드라마 계획에 따라서 사라스와티가 그 일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구루인 어머니에 대한 찬양도 역시 있어야 한다. 이 사람은 1등의 구루로 아주 유명하다. 구루 브라마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너희 브라민들도 역시 참된 구루들이며, 천국으로 가는 참된 길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준다. 영혼은 입을 통해, “만마나바브, 마디야지바브”라고 말하면서 길을 보여준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모두가 같은 길을 보여준다.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을 때 너희들은 기억도 역시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너희 모두 떠나서 집에 가면 너희 자녀들 중 많은 수가 잊는다. 너희들이 바바에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희열을 경험한다. 바바가 말한다: 자아 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이 되어라. 해방의 나라, 아버지, 유산을 기억해라. 이 방법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어라. 앓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기억과 사랑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녀들에게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서로를, 그리고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중해라. 비록 아버지가 뭔가에 대한 경험을 초월해 있지만, 너희들이 그의 반다라에서 부양 받고 있으니, 반드시 그분에게 제일 먼저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2. 숭배받을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신의 조력자가 되어라. 봉사에서 아버지의 조력자가 되어라. 몸과 영혼, 둘 다 순수해지면, 너희들은 숭배를 받을 것이다.

축복: 너희 스스로와 다른 모든 이에게 합법적이 되어, 법을 세우는 이,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이가 되어라.

자기 자신에게 적법한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역시 적법할 수 있다. 법을 어기는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어떠한 법도 강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를 살펴봐라: 아침부터 밤까지 나의 생각, 말, 행동, 접촉, 다른 이들과 협조하는 데서, 그리고 봉사하는 데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법을 어기는 일은 없는가? 법을 만드는 이들(lawmaker)은 법을 어기는 이(lawbreaker)가 될 수 없다. 지금 이때, 법을 만드는 이들은 평화 중재자(peacemaker),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이들이 된다.

슬로건: 행동을 하는 동안, 그 행동의 좋은 점이나 나쁜 점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카르마티트 단계이다.

*** 옴 산티 **OMSHANTI** ***

아비약트 신호 - 화산과 같은 단계에 머물며 강력한 기억을 경험해라: 화산 같은 기억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과 지각, 양쪽 모두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또한 방향을 트는 힘도 필요하다. 그것들을 가짐으로써, 너희 지각의 힘, 그리고 다른 어떤 에너지도 낭비되지 않고 축적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들을 얼마나 축적하는가에 따라, 너희들의 식별력과 결정력도 그 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특히 다른 생각들의 확장을 끝내라, 다시 말해 짐 꾸리는 힘을 길러라.